

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창세기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창세기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삶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영원히 기념해야 합니다.

이 은총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온전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이로다”

그런데, 악한 원수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지난 53년간 충현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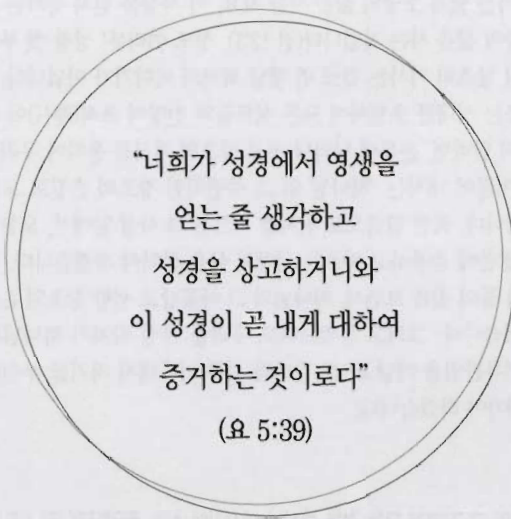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소망합니다.

2006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절).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나타난 ‘창조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무(無)의 상태에서 온전한 유(有)의 상태로 만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완전한 무에서 온전한 유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만이 인간과 만물에게 빛과 생명을 던져 줍니다. 정녕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빛과 소망의 삶을 사는 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둠과 절망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전 12:1). 성도 여러분! 성경 첫 부분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의 기사는 결코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초석(礎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무로부터 유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창조의 손길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의 별과 들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손길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 각자가 하나님께 소중히 창조의 면류관임을 깨닫고, 큰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소서. ② 금요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끝으로 6일 간의 창조사역을 마치셨습니다(1절). 그리고 제 7일에 평안히 안식하셨습니다(2절).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말은 '조용히 앓다' 혹은 '평안히 쉬다'라는 의미로 곧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휴식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을 인준하시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3절). 우리는 인간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 본문(4-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녕 사람의 근본 됨에 대하여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7절). 본래 인간이 흙(진흙이 아니고 땅의 티끌이나 먼지를 가리킴)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은, 필연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절대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근본 됨을 기억하고 살 때,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전 12:13). 이어 8-17절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상의 복된 상태를 갖춘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거하게 된 사실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18-25절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뤄진 최초의 결혼 장면을 소개합니다. 실로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따라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기도 제목 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3장은 인류의 타락의 기사가 나오는 어둡고 암울한 장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처절한 절망을 암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탐심과 그릇된 호기심으로 인간이 금단의 열매(창 2:17)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는 장면(1-6절)과 그로 인한 극심한 죄의식(7-10절) 및 범죄에 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언(11-21절) 그리고 낙원에서의 추방(22-24절) 등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경솔히 여기며 또 교만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인간의 범죄는 자신과 이웃과 가정과 주변 환경을 파괴시키는 치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안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나 가능성이란 결단코 없습니다. 그저 고통과 절망과 불화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21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실(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기도 제목 ①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소서. ② 교회 설립 53주년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뒤이은 커다란 범죄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인류역사의 반복된 악순환이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중압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여 유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13,14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삶과 이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5절). 뒤이어 가인의 후예들의 변성과 그들이 만들어낸 불경건한 인간 문명을 소개합니다(16-24절). 동시에 그러한 암울한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거룩한 씨를 통해 인간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조용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25,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인간은 항상 중오와 불안에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문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실패로 인간의 역사가 절망으로 어그러져간다 해도 그 역사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9,10절), 당신의 뜻을 좇는 거룩한 씨를 세상 가운데 조용히 보존해가십니다(25,26절).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

기도 제목 ① 기쁨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항상 기도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어야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 받아 저 주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나타내시며 축복도 주셨습니다. 자손이 계속 이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면히 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3장). 타락한 인류가 타락의 문화와 무신론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보존하십니다(4장).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5장).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악의 세력이 왕성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여인의 후손(창 3:15),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아마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24절). 이처럼 이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번져가는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창 4:26).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벧전 1:9).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기도 제목 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길이 하나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뿐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홍수 사건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하나 뿐이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18절).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 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욥 2:32)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갈 때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사 53:5,6).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방편, 즉 그 통로를 단 하나로 정하셨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행 4:12). 즉 노아의 방주에 있는 단 하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요 10: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만민이 다 죄로 신음하며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구원의 방주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기도 제목 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죄악으로 모든 세상에 하늘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와 함께 그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19절). 그렇다면 인생을 덮어버린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지구를 덮어버린 홍수의 물은 심판의 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 아래 잠겨버렸습니다.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11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겼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피신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손길이 노아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방주 바깥의 물과 죽음과 심판을 두려운 심정으로 보는 가운데, 방주 안의 생명과 안전과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23절).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의 사건입니다(마 24:37-39).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실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홍수 전에 마치 노아가 외친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든지 들어와 구원 얻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외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달아 놓으시니라”(창 7:16)

기도 제목 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 하사…”(1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휘몰아 치는 바람과 계속되는 비, 때로 풍랑 속에 이리저리 뒤집혀질듯이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노아와 모든 육축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방주는 심판의 거센 물결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소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늘 기억 속에 두시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억 하시고 사랑하십니다(사 49:15,16).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겔 18:32).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믿는 자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권념하신다는 것은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염두에 두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기도 제목 ①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구역모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교제로 풍성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지내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멸하는 홍수 심판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육축과 기업에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주셨던 축복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선포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말씀과 은사로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주의 제자 삼아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어쩌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할 이단의 미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바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니콜라 당입니다. 이들은 에베소 도시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이 니콜라 당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5절). ‘회개하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용납하시지 않는 모든 죄에서 단번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그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개하는 심령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② 하반기 교육훈련원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훈련생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불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8절).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면에서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순종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선교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12절).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소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성도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기도 제목 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1절). 하늘에 열린 문이란 하늘과 땅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하고 하늘의 보좌를 공개하사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기는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여신 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그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요 10:7)

기도 제목 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5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이 짐승들의 피로 백성 및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것, 곧 그리스도의 속죄제가 있기까지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무흠하신 자신의 피를 드려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십니다. “...뿔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6:1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수요 예배와 교회 주일 전도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17절). 본 장에는 심판에 대해서 여섯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순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정치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종교적 야심을 가진 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두 번째 단계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 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근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는 끔찍한 사건으로 접어들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역사, 죄악의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했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더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더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복음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13절). 보좌 앞에 있던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만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승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동안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죄악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장로는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씻어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대속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믿는 인간의 죄악을 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기도 제목 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신 후에 하늘이 반 시 동안쯤 고요해졌고, 그 반 시 동안의 고요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이외에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즉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에 의한 심판의 알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진실한 기도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의로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기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자신하십니까? 그것들이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드리졌던 기도였나요? 또한 끝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드리졌던 기도였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거짓되고 위선적이었으며 불신앙적이고 불의했던 기도들에 대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실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계 8:3)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단은 성도의 가장 큰 대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였고 그후 오늘날까지도 쉽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꾀어 범죄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얼마동안 사단이 이제까지보다 더욱 극렬하게 날뛰는 것을 예고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묘사된 사단이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수하 세력들을 풀어 사람들을 해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단의 권세는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키 어려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을 피하거나 그에게 굴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고 하여 강력히 대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얼핏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권세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단의 권세를 가벼이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군사인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바로 알고 그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싸움의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계 9: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의 학생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우리는 간혹 세상에서 악이 횡행하고 악한 세력의 권세가 크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고 공의를 시행치 않으시는지 불만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체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지체하심이 없이 즉각적인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체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많은 자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지체치 아니하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회개의 기회, 헌신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남겨둔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전도하지 않고 방치한 한 영혼이 결국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해 영벌에 처해지고, 오늘 내가 미루었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판을 보류하시고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회개하며 헌신하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계 10:6)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헌신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②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며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지극히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자들을 정확하고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척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척량해 보라고 하신 것(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척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정확 무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척량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거나 합당치 못한 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척량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척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열매를 척량해야 합니다. 마지막 척량이 있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척량해 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참된 믿음과 의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척량해보고 회개하며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척량하시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영광과 축복을 받을 자로 척량받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도”(계 11:1)

기도 제목 ① 늘 자신을 말씀으로 척량하여 회개케 하소서. ②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무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변치 않는 충성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서 끝내 이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하여 죽기까지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삼켜져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벧전 5:5).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영적 전쟁에 임함에 있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거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날까지,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주의 군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계 12:11)

기도 제목 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소서. ② 구역장 영성 훈련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들 중에는 인내의 부족으로 인해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급하여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인내를 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출발을 잘하고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히 10:36).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죄와 싸울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재림을 기다릴 때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말며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2). 우리는 죄와 싸울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도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기도 제목 ① 승리의 그 날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십사만 사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니까? 어떤 자들이기에 구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시온 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4,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유혹)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그들은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즉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시온 산에서 있게 될 자들은 바로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들이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거룩하고 영원한 시온 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모든 정욕과 세속적 관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 진실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시온 산에서 주와 함께 서며 우렁차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계 14:4)

기도 제목 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금요일집회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계시의 서론 부분으로 사단의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한 성도들(2절)이 하나님의 거문고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도 표현한 이유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 때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찬양했던 백성들의 찬양하는 모습(출 15장)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믿지 않는 자들과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유일하게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후에 다시 오시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문고를 타면서 찬양한 노래입니다. 세상의 헛된 노래를 버리고 주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왕 되심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계 15:2)

기도 제목 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어린양 예수님을 찬양케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일곱천사가 각각 쏟아놓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것으로 점차 커져가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 등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들이 크게 오염되어질 것입니다. 재앙은 점차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영적 전쟁입니다(16절). 유브라데는 당시 로마와 동방나라의 정신적 경계선을 의미하였습니다. 로마가 평화로웠던 이유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유브라데강이 그들을 지켜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시고 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억제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을 통해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그 세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13절). 용은 마귀입니다.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조종자입니다. 짐승은 앞에 나서서 설치는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아첨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속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계 16:15)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로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1절).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음녀와 음행하고 음행에 취하였다고 합니다(2절).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의 막강한 힘을 입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음녀의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의 분명한 정체와 위험성은 일상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황량한 광야에 나아가 서 있으면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녀는 참람한 이름이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3절). 그리고 음녀의 몸에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4절).

음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음녀는 세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라는 것입니다(5절). 비밀이라고 함은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사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큰 바벨론이라 함은 그것이 인본주의 왕국의 대명사로 인간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이 강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비도덕적인 우상숭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를 이기는 것은 오직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뿐이십니다(14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 17: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②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의 멸망을 외쳤습니다(1절). 천사는 하늘의 영광을 통해 땅을 환하게 할 만큼 빛이 나는 것에 반하여 바벨론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2절). 앞장에서는 이를 음녀라고 하였고, 그것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세력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게 될 때 그들 모두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로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는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자들입니다(4절).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이라”(행 28:22).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미움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계 18:20).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계 18:20)

기도 제목 ① 세상의 멸망당할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2절). 따라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절). 이십 사 장로들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보좌 앞에 앉은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입니다(4절). 그리고 수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의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6절). 죄로 인해 불완전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해졌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7절). 영광의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이 순간은 혼인 잔치와도 같습니다. 이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날의 잔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풍성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9절).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16절). 자기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주이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11절).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 합니다(20절). 그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습니다(21절).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들뿐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계 19:13)

기도 제목 ①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② 수요1·2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구원이 모두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들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크고 흰 보좌입니다(11절). 이것은 최종적이며 대단한 권세가 있는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판단하실 것입니다(롬 2:6-8).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 없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마 10:28).

본문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12절).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고 합니다(15절). 사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행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바 되지 않고 모두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죄들이 다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죄로 인해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 20: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1절). 이곳에서는 이전에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모든 자들의 거한 곳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2절a). 사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입으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2절b). 그것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벧전 3:3,4).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4,5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6절a). 그분은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값 없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6절b).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의 순간 이들의 숫자가 다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요 19:30). 그 은총으로 성도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계 21:6)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금요 집회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과 집회를 위해 수종 드는 모든 종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통치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이든 비유적인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함께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3절). 그곳에는 처음 에덴동산을 통해 보여주셨던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1절). 그 주변에는 생명 나무가 열 두 가지 실과를 맺으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잎사귀들은 그 푸르름을 더 할 것입니다(2절). 그곳에는 어두운 밤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햇빛보다도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5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되어질 것을 계획하십니다(6절).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7절에서와 12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7절).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번개하거나 무시할 때, 약속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생명 나무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9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기도 제목 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9월 구역공과 초점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삶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념하며 믿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 15:2). 이 찬송은 좋은 군사의 승전가가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 점
0901	고전 11:23,24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
0908	출 15:2	여호와께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우리의 힘, 노래, 구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라
0915	엡 6:10-13	좋은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가 되라
0922	에 4:7-16	에스더의 삶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총의 일꾼을 소망하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송.....	다같이
기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 초 점 |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

| 찬 송 |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3,24

^㉓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
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
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은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11:24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역시 매우 분명했습니다.

요 1:29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염소나 늑대 혹은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어린 양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손에 들린 떡이 다른 누군가의 몸이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몸과 자신의 희생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자리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어린 양의 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은 사람의 평범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양의 몸을 의미합니다.

롬 9:5

고후 5:19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좋은 이야기나 훌륭한 교훈쯤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몸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구원을 위한 몸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의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갈 3:13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②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 ③ 예수님께서 자신의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자신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전 14:33

십자가를 통해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성찬식과 아울러 교회 설립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엡 4:22-24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와 진리의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전통이나 습관을 따라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갈 5:5 / 우리가 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로 路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갈 5:17,25

고전 10:12

겸손히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2과 여호와와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 초 점 |

우리의 힘, 노래, 구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라

| 찬 송 |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본 문 | 출애굽기 15:2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있어 많은 의미로 다가오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계곡의 백합화요, 새벽별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기묘자요, 모사,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출 15:2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따르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참 신자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신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엡 3:16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일 4:4 /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이라
 딤후 2:3 /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을 받을찌니

주님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딤후 6:12

합 3:19

사 40:31

시 23:4

주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노래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 2:47 / 하나님을 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행 3:8

행 4:24

행 16:25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엡 5:18,19 /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며

시 40:3 /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골 3:16 /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까? 십자가의 은총은 값 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은 곧 여러분이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골 1:13,14

벧전 1:3-5 /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을 얻기 위하여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십자가로 路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삼하 22:23

다윗에게 있어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이었기에 그의 입술에서 찬송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까? 참으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주님만이 나의 힘, 노래, 구원이 되게 하소서
2. 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좋은 군사는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딤후 2:3,4 /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후 6:17 /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좋은 군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세상적인 것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요일 2:15,16

주님께만 충성하라

좋은 군사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상관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들은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마 6:24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과 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좋은 군사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좋은 군사는 군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좋은 군사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군에서 복무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설교문 참조)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군사들을 뽑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삼상 16:7

또한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자 대신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고전 1:27

요 15:16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마 16:24).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장되십니다. 좋은 군사는 마음과 뜻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과 그분의 능력에 맡겨드립니다.

엡 6:10 / 종말로 너희가 □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여지고

좋은 군사는 방어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면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됩니다(11절).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엡 6:12)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과 좋은 군사

| 초 점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가 되라

| 찬 송 |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 본 문 | 에베소서 6:10-13

¹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¹¹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¹²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¹³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롬 12:1,2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것을 준비합니다.

요일 3:13 /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 15:18,19 / 세상이 너희를 □□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인해 생기게 될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미움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인내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17:14

계 2:10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고 세상의 풍습을 멀리하십시오.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전투의 고통을 대비하며 자신을 비우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육체,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히 10:37-39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13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좋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가 되게 하소서.
2.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맞서 싸워 승리케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좋은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4과 에스더의 삶

| 초 점 |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총의 일꾼을 소망하라

| 찬 송 |

찬송가 102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본 문 | 에스더 4:7-16

⁷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 ¹⁵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¹⁶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희생한 젊은 유대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 에스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는 B.C. 474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였고 희생제물을 통한 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 유일한 여인은 에스더였습니다.

※ 하나님께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쓰신 사람들은? (설교문 참조)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하만이 고안한 조서가 아하수에로 왕의 인침을 받아 전역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충절과 인애,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 모르드개의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은?(본문 참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참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에 4:14 /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은 에스더와 같은 신자들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신자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시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스더의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 4:16 /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_____ 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위기는 또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 6:8 / 내가 □□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령으로

지금은 위험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런 권능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히 13:8, 엡 3:20).

렘 33:3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을 2:28 / 그 후에 내가 내 □을 □□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은 기회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 5:14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계 22:2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요 9:4). 그러나 또한 최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뒤로 미룬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路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땅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 28:19,20).

행 1:8

눅 10:19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일 우리가 지금 이때에 잠잠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과 지위를 주신 것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입니다! 에스더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은총의 일꾼을 소망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에스더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2.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주님의 일에만 쓰임 받는 은총의 일꾼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삶

⁽⁷⁾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 ⁽⁸⁾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⁹⁾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7~16)

에스더서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희생한 젊은 유대 여인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 날을 정하여 유대 민족을 전멸하라는 아히수어로 왕의 조서가 모든 지역에 전달된 후, 바사국 정부와 백성들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후로 등극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연약한 여인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녀의 송고한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B.C. 474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였고 희생제물을 통한 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바사 왕들)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유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에스터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대적 하만이 고안한 조서가 아하수어로 왕의 인침을 받아 전역에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에스터의 사촌인 모르드개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악하고 교활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윈 에스터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아왔습니다. 왕이 새 왕비감을 구하고 있었을 때 에스터의 성품과 아름다움은 왕의 관심을 끌었고 마침내 에스터는 바사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때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터를 찾아온 모르드개는 그녀에게 충절과 인애,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에스터는 충분히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서 유대 민족들을 무시한 채 왕족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에스터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으로

최악의 상황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참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에스터의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 세미나에서 지독한 싸움과 질투와 증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참 신자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은 에스터와 같은 신자들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신자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스터의 시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스터는 자신의 자리에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16절). 에스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 그녀의 민족 역시 위험했습니다.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7절). 위기는 또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은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희생하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 마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전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령으로

지금은 위험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런 권능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지금은 기적의 시대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열정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인데 왜 낙심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욥 2:28).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정확히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

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에 5:14). 제발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내일 아침 계획까지 세워놓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요한복음 9:4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뒤로 미룬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여러분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모르드개는 에스테르에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 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14절)?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때에 잠잠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입니다! 에스테르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쓰임 받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코,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9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최종철(1-10일), 이창수(11-20일), 김준희(21-30일)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